

(생략)

#2 지하 주차장, 외부, 낮

각진 인도 옆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알렉스. 차 한대가 그에게 다가온다. (J-cuts: 알렉스가 차에 타 있다.) 머릿속에서 혼잣말을 하는 알렉스. 그 차에는, 이 거래의 고객이자 20대인 체브 씨와 요크 씨가 함께 타고 있다. 그들은 알렉스를 뚫어져라 쳐다본다. 불안한듯 알렉스는 눈을 피하고, 연신 손톱을 깨문다.

체브 씨 : 다 끝난 건가?

알렉스 : (초조한 목소리로) 예.

체브 씨 : 좇된건 없고?

(FLASHBACK)

알렉스의 방, 그가 아직 죽지 않은 목표를 비닐에 역지로 집어 넣고 있다.

(END FLASHBACK)

체브 씨 : 어이, 여보세요? 씨발 내가 지금 벽이랑 말하나?

알렉스 : (자신 없는 목소리로) 예! 예, 그럴 겁니다. 아마도...

체브 씨 : 그럴 거라고? 씨발 왜 대답이 그따구야? 이게 뭐 씨발 장난 같아?

요크 씨 : (한국어로) 진정 좀 해. 여기 공공장소다.

체브 씨 : (한국어로) 죄송합니다. (영어로) 지금 급하잖습니까, 그냥 단도리 좀 시킨겁니다.

요크 씨 : (알렉스에게) 야, 나 좀 봐. 죽인거 맞지?

알렉스 : 예, 네... 네. 저... 제가 무덤도 봤으니까요.

고개를 끄덕이는 요크 씨, 이어 그가 체브 씨에게 시선을 던진다. 체브 씨는 알렉스에게 돈을 건넨다. 한결 안심한듯 보이는 알렉스. 요크 씨가 백미러로 알렉스를 쳐다본다.

요크 씨 : (한국어로) 알렉스. 혹시 거짓말이면...

요크 씨가 고개를 돌려 알렉스를 마주한다.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띤 채다.

요크 씨 : ... 확실히 저며놓을 거니까.

협박하듯 몰아치는 요크 씨의 말에, 알렉스의 눈이 커지고 이어 그가 침을 꿀떡 삼킨다. 알렉스가 차에서 내리고, 차는 떠난다.

(중략)

#13 지하 주차장, 외부, 동틀녘

체브 씨, 요크 씨가 타 있는 차에 탑승하는 알렉스. 요크 씨가 알렉스에게 봉투를 건넨다. 알렉스가 열어보자, 안나의 사진이 들어 있다. 그의 눈이 커지고, 침을 꼴딱 삼킨다. 말 할 수도 없이, 온 몸이 얼어붙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알렉스. 요크 씨는 계속해서 말한다.

요크 씨 : (한국어로) 네 다음 타깃, 안나 제인 포터다. 너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애인 가봐. 정보원이 말하길, 딜러에, 학생에, 혼자 산다고 하더라. 근데 이년이 자꾸 우리 구역에서 장사를 하지 뭐야. 좀 없애줬음 하는데. 쉬운 일 일거야.

침묵하는 알렉스. 황망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알렉스. 체브 씨가 끼어든다.

체브 씨 : 씨발 뭐하냐? 우리가 뭐라는지 듣기는 했어? 너 이 년 알기라도 해?

땀 흘리는 알렉스를 가까이서 바라보는 카메라.

알렉스 : 저는 못 죽어요. 제 친구라고요. 좋은 사람이고요. 그냥 사람 그만 죽이고, 제 인생 살래요.

보다 못해 폭발한 두 남자는 알렉스에게 따지기 시작한다.

요크 씨 : (한국어로) 그냥 네 친구라서, 그래서 지금 안하겠다고 한거야? 야, 직장에, 집에, 밥에, 돈까지 쥐어 줬더니 배신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와?

알렉스 : 좃 까, 안할거니까.

평정을 잃은 체브 씨는 요크 씨와 시선을 교환한다. 둘은 총을 꺼내 알렉스의 머리를 쏜다. 하지만 모든 것은, 알렉스의 상상이었다.

체브 씨 : 저기요? 정신 차려. 씨벌 거. 그래서 할거야 말거야?

알렉스 : 할게요.

요크 씨가 알렉스에게 소음기 달린 권총을 건네준다. 장전된 채다.

요크 씨 : (한국어로) 시체 처리는, 이번엔 체브 씨가 도와주실거다.

알렉스 : (애써 웃어보이며) 고맙습니다. 이만.

차에서 내리는 알렉스. 멀리 차가 떠난다.

알렉스 : (러시아로) 좃 같네.